

2026년 하반기 유아세례 안내문

분당우리교회 세례부

2026년 하반기 유아세례를 신청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에 한 번 받게 되는 사랑하는 자녀의 유아세례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아래 사항을 참고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일시	2026년 11월 1일(주일) · 1~3부 예배 중 진행
신청자격	아기 24개월 미만 부모 중 1인 이상 세례교인(입교·침례 포함)으로 등록 3개월 이상
교육일시	10월 10일(토) 또는 10월 17일(토), 오후 1시 50분까지 출석확인 두 날짜 중 1회만 참석
교육장소	드림센터 301호

안내사항

1. 유아세례식은 11월 1일(주일), 1~3부 예배 중에 순서로 진행됩니다.

2. 신청 자격

- 아기는 24개월 미만,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세례교인(입교, 침례교인도 포함)이면서 등록 3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6년 하반기 장년 세례(입교) 예정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참여 예배 선택

- 세례 당일 참석예배를 1부(7:30), 2부(9:30), 3부(11:30) 중 1순위와 2순위로 기록해 주십시오.
- 너무 많은 인원이 한 예배에 집중될 경우 예배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참여 예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후 참석하실 예배를 문자로 공지해 드리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축복의 글

- <축복의 글>은 세례식 당일 세례 받는 동안 화면에 띄워 드리는 짧은 자막 내용입니다.
- 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50자 안에서,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의 특별한 축복 멘트를 적어 주세요.

5. 교육 및 문답

- 교육일(10/10 또는 10/17)에 오후 1시 50분까지 드림센터 3층 로비 안내부스에서 꼭 출석확인을 해주세요.
- 교육과 문답은 총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1시간의 전체 교육 후, 오신 순서대로 가정별 개별 문답이 진행됩니다.
- 교육 받으실 때는 아기를 데리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유아 동반 참석도 가능).
- 가급적 부모님이 함께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한 분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
- 교육 희망일은 변경 가능하며, 반드시 두 날짜 중 하루는 참석해야 합니다.

부모 신앙간증문은 신앙고백과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결단을 담아 작성하며, 문답이 이 글을 토대로 이뤄지므로 기도하며 기록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 당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문답 및 유아세례식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문답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유아세례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유아세례식 당일

- 교육과 문답을 모두 받으신 부모님들은 예식 당일(11월 1일, 주일) 본인이 신청한 예배 시작 30분 전까지 "대기장소(송림 교육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각하실 경우 예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예: 2부 예배의 경우 09:00까지 도착)

7. 기타

- 다락방에 소속되신 분은 순장님께 유아세례 받는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구 사역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준비 과정 한눈에 보기

1 신청 시 제출

참여 예배 1·2순위, 50자 이내 축복의 글을 함께 적어 신청해 주세요.

2 교육 당일 (10/10 또는 10/17)

드림센터 3층 출석확인 → 전체교육 1시간 → 개별문답. 부모 신앙간증문을 이때 제출합니다.

3 예식 당일 (11/1 주일)

배정된 예배 시작 30분 전까지 대기장소(송림 교육관)로 모여주세요.

부모 신앙간증문 양식

교육 당일 제출하실 신앙간증문 양식입니다. 편하신 형식으로 받아 작성해주세요.

PDF로 받기

HWP로 받기

DOCX로 받기

분당우리교회 세례부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구 사역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유아세례 가정학습지

교육 전, 부모님이 함께 읽고 준비하시면 좋은 글입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이다. 구약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249쪽, 유아세례 중에서 (참고: 창 17:7)

1. 세례란 무엇인가요?

1)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과 굳게 하는 '성례'

성경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이 성령님을 느끼고 만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교회에서 믿음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 사람의 구원을 굳세게 하십니다. 개신교의 성례는 두 가지, '성찬'과 '세례'(장년과 유아)입니다. 성례가 이렇듯 중요한 성령님의 도구임을 알면 여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2) 세례의 의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다

세례는 물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이 신자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례식에서 목사님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000에게 세례를 주노라"라고 선언하며 물을 머리에 뿌립니다. 방법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그 의식에 담긴 '내용', 곧 '약속'입니다.

세례의 핵심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마법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 들여 배우고 확신하는 자에게만 유익이 있습니다.

2. 유아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유아세례의 근거

어떤 사람들은 세례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야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에게 주는 것은 미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례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기는 생각입니다. 세례는 사람의 믿음을 표시

하고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자녀에게도 그 언약을 표시하고 인쳐 주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풁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 용서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는 세례가 그 역할을 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사 44:3) — 아이들이 아직 믿음을 시인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언약의 복음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이 유아세례입니다.

2) 유아세례의 의미

유아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유아세례는 아이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유아세례 자체가 아이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구약의 언약과 비교해 '새언약'이라 부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부모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함을 드러내기 위해 표와 인을 붙이는 것, 그것이 유아세례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어지기에, 유아세례에서 자녀도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3) 유아세례의 유익

유아세례를 통해 아이는 부모와 함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 아래 통치를 받고 그 법을 지키며 자라나기에 더 큰 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이 경험을 통해 생명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됩니다.

유아세례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성원이 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유아세례 후 부모에게는 어떤 영적 책임이 있나요?

1. **첫째**,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가치관과 뜻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시 127:3~5).
2. **둘째**,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려서부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3. **셋째**,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의식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고백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4. **넷째**,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믿음의 도리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배우고 지키며, 주일성수와 가정예배를 경건하게 지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4. 결론

유아세례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모는 교회 앞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공적으로 서약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본이 되며,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여 그가 믿음으로 자

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할 책임을 집니다. 그 마지막 단추가 끼워질 때까지 부모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를 위한 부모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례를 통하여

이 아이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영육 간에 성장할 때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라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모 된 저희들도 기억하시어 오늘 서약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 아이를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가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